東亞日報

編輯兼發行人 主筆 ... 印刷人 ...

發行所 京城府太平通 東亞日報社 電話②一一八一

定價 月 金廿五圓

社說

防疫에 積極協力

一

장마는 支離하게도 依然히 繼續되고 있다。 一般農作物의 被害와 장마에 따르는 莫大한 水禍도 水禍라 하려니와 濕度가 甚濃한 蒸天의 日氣가 오래 繼續되는지라 안존자리에 곰팡이가 낄지경에 이를을 노리는 傳染病의 猖獗은 더욱더 可恐한 일이며 또 警戒를 要하는 바이다。

지난달 中旬에 이미 傳染病中에서도 무서운 虎列刺가 戰災同胞들에 依하야 大陸方面으로부터 境內에 侵入을 보게 된 以來 保健厚生部를 中心한 防疫陣의 必死的인 活動이 繼續되고 있음에 不拘하고 그 蔓延의 形勢는 依然히도 滋蔓하야 昨十日 現在 南朝鮮各地에는 患者數 三一九二名 死亡者數 一八三四名의 計數를 表示하고 있으며 이것으로만 보드래도 그 趨勢가 決코 愉安할 바 못됨을 짐작할 일이다。

二

傳染病이란 元來 그 自體의 性質로서 한 患者로부터 漸次로 蔓延하야 무서운 結果를 보게 됨에 警戒를 要하거니와 虎列刺는 傳染病中에서도 그 性質이 惡質일뿐만 아니라 死亡의 比率과 傳染의 樣態가 實로 놀날만치 急速한 것이며 또 이 病의 傳染이 飮食物을 媒介로 하는 것인 만치 이에 對한 警戒에도 格別한 注意가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可恐할 虎列刺의 蔓延防止는 반드시 悲觀할 일만이 아니다。 이미 防疫當局은 豫防注射의 徹底한 實施를 勵行하야 免疫의 抵抗力을 人體에 扶植하야 이를 豫防하자 함이어늘 當局의 이와 같은 活動에도 不拘하고 一般은 아직도 이에 對한 關心과 理解가 遲弱한 지 이를 忌避하는 傾向이 있다 함은 그 自身을 爲하여서도 그러려니와 一般防疫上 要請으로서도 그 累를 他人에게 끼치게 된다는 것을 理解하야 一層 더 當局과 더부러 協力이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三

防疫의 方法은 豫防注射의 實施만으로 고칠 바가 아니다。 豫防注射의 機能은 그 文字가 表示하는 바와 같이 發病을 未然에 防止하자 함이니 豫防注射가 防疫上 絶對로 必要하다는 것은 常識 以上의 常識으로 더 말할 必要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豫防을 機能으로 하는 豫防注射라 할지라도 이미 發生된 病의 豫防에는 依存할 수 없는 것은 勿論이다。 防疫의 目的이 不幸히 發病을 根絶하자 함이나 이 發生되었을 때에는 孤立하야 이것을 防疫當局에 알리게 하야 患者를 隔離하고 他에 그 累를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지니 이에 對한 一般의 關心 또한 아직도 薄弱한 點이 적지 않다。 最近 虎列刺에 對한 政策에 있어서 刺가 蔓延하게 되는 實態와 經路가 흔히 이를 隱蔽함에 因되는 實例가 많다는 事實로 보아 이와 같은 隱蔽야말로 防疫의 一大支障이라 할 것이다。 以上에 叙擧示한 것으로만 보아도 그 趨勢가 實로 憂慮되는 바이어니와 우리는 이 病의 傳染의 媒介인 飮食物 等에 對한 特別한 注意와 아울러 防疫當局의 指示에 順應하야 一層 더 防疫에 萬全을 期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四相會議 十三日閉幕?

獨統一案을 英提案

美佛은 贊意·蘇聯態度不明

【巴里十一日發AP合同】方今 四相會議에서는 獨逸問題에 關하야 아직까지도 論議를 繼續하고 있는데 十一日會議에 있어서는 今週末까지 모든 問題를 解決하야 會議를 終結시키고저 努力中이라 하며 外相代理에 對해서는 十三日까지 伊太利, 洪牙利, 羅馬尼亞, 勃牙利亞, 芬蘭에 關한 媾和條約의 最後草案을 作成하도록 指令하였다 한다。 그리고 獨逸問題에 關하야 英外相 『베빈』 氏는 現在 四分되고 있는 獨逸을 統一시키기 爲해서 必要한 某種의 政策을 討議하자고 主唱하야 美佛側은 이에 贊意를 表하였으나 蘇聯態度는 아직도 分明치 않다 한다。 또 獨逸賠償問題에 있어서 蘇聯側은 百億弗의 賠償을 獨逸에 要求하야 이것은 『얄타』 協定에서 規定된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는데 對하야 『번즈』 氏는 『이 金額은 다만 討議의 基礎로서 言及되었을 뿐이라』 고 이를 反駁하였다 한다。 한편 美側에서 傳하는 바에 依하면 萬若 會議가 十三日까지 終了될 때에는 『번즈』 氏는 『트르맨』 大統領과 協議大華府로 歸還할 것이라 한다。

國境確定에 새措置

獨逸管理에 對한 佛側主唱

【巴里十一日發AP合同】今日 四相會議에서 佛國代表 『비도』 氏는 다음과 같은 發言을 하였다。 나는 獨逸問題에 關하야 지난 十日 蘇聯代表 『모로토프』 氏가 闡明한

(一) 獨逸의 非武裝化

(二) 『나치즘』의 破壞와 同時에 民主主義的 生活의 樹立

(三) 戰災를 입은 關係國에 對한 獨逸의 賠償

等의 原則에 同意하는 바이다。 그러나 나는 獨逸에 關하야서는 聯合國의 共同目的을 實現하기 爲하야 各國이 다 같이 左記의 三項이 가장 適當하다고 생각한다。 即

(一) 新生獨逸의 國境을 確定하기 爲하야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

(二) 獨逸占領國의 新政策 樹立

(三) 獨逸의 新法體制確立 等이다。

한편 獨逸國境問題를 決定的으로 解決하지 않는 以上 獨逸占領國은 獨逸問題에 있어서 何等 成果 있는 積極的 業務를 遂行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포쓰담』 會談에서는 東部獨逸國境問題에는 合意를 보았는데 이 『포쓰담』 決定에 對하여 佛國은 反對치 않았든 것이다。 그러나 西部獨逸國境問題는 아직 未解決狀態이며 이에 對한 우리의 主張은 依然 變함이 없다。 한편 英代表 『베빈』 氏는 美代表 『번스』 氏의 獨逸二十五個年武裝解除保障管理案을 支持하야 蘇聯은 『포쓰담』 決定中 『獨逸을 經濟的으로 統一한다』 는 條項을 履行치 않고 四大强國은 獨逸을 共産, 人民, 獨立, 民主 ...

西獨에 特別經濟策

四地區境界線撤廢안되면

獨占領美軍司令官談

【푸랑크폴트十一日發AP合同】美獨逸占領軍司令官 『조세프·맥크나리』 大將은 新聞記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萬若 四個國外相會議가 現在 獨逸에 있는 四地區分割境界線을 撤廢하야 通商自由를 保障치 않는다면 美國은 西部獨逸에 特別經濟政策을 실시할 뿐 獨立하여야 할 것이다。 四國外相은 獨逸의 統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나는 獨逸經濟的으로 아무런 成果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獨逸占領을 十年乃至十五個年繼續할 必要를 느끼는 바이며 美軍部로서는 美占領軍의 兵員數를 減少시킬 意思는 없다。

各政黨代表者會合

大邱地方會組織을 討議

大邱에서는 各政黨의 代表者들이 大邱地方會를 組織하기 爲하야 會合하였다고 한다。 이번 會合은 朝鮮에 있는 各政黨들이 國民을 爲한 政治問題에 關하야 統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對한 試金石이었는데 그 結果는 成功的이었다고 한다。 이 會議는 各黨代表者 五名式으로 機構成되었으므로 多大數의 代表者들은 無政治的 衝突이 없이 政治團體로서 其機能을 發揮할 수 있을가에 對하야 危念하였다。 會議는 順調로 進行되어 投票로 民主黨 白南九氏가 議長, 副議長에 共産黨代表 李相薰氏가 被選되여 ...

華北에서 國共또衝突

大規模攻擊을 雙方이 非難

【南京十一日發AP合同】中央政府側報道에 依하면 中共軍은 中央軍에 對하야 大規模的 攻擊을 加하고저 態勢를 整備中인데 이미 揚子江 以北으로부터 滿洲에 이르는 地域에는 軍隊와 彈藥等을 集結中이라고 한다。 反面 中共側도 中央側에 對하야 同一한 非難을 加하고 있는 中이며 이미 華北에는 國共衝突이 展開되고 있다 한다。

救濟品處分不公平 中共 中央政府攻擊

【南京十一日發AP合同】中共側代辯者는 『운라』 救濟品處分問題에 關해서 中央政府를 攻擊하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中央政府側은 政治的 理由로써 中共側地區에 『운라』 救濟品을 適當히 輸送치 않고 있는데 이것은 不公平한 일이다。 中共側의 管轄하고 있는 地區의 人口는 全中國의 三分之一인데도 不拘하고 此等地區에 輸送된 『운라』 救濟品數量은 全量의 一%에 不過하다。 이것은 軍事的 政治的 理由로 말미아마 齎來된 것이다。

破壞家屋三百萬戶

【東京十一日發AP合同】戰爭中 美空軍의 爆擊으로 約三百萬戶의 家屋이 破壞되었는데 그中 二百四十萬戶는 直接空爆을 當하야 破壞되었고 殘餘의 六十萬戶는 戰略上의 疎開로 除去된 것이라 한다。

保爭에서 建設로

不愉快에서 생겨난 새로운 愉快

今般 京城日報社 保爭事件을 契機로 하야 京日 新管理人及 漢城, 東亞兩當局은 全評, 出勞와 友好的으로 折衝한 結果 京日事態만이 圓滿하게 收拾되었을 뿐아니라 朝鮮産業經濟界의 健全한 發展을 爲하야 한 個의 礎石이 될을 맛고 그 協定全文을 紹介하는 바이다。

京日職業과 收拾의 顚末

一、協定書

『朝鮮日報』 『東亞日報』 『漢城日報』 『뉴-욕라임스』 發民週報의 分離 民週報의 解約을 契機로 하야 前管理人方應謨氏 責任存續中에 工務員側은 作業을 拒否하고 管理人側은 解雇를 宣言하는 等 事態가 發生하야 京日은 그 運轉機能이 停止되고 따라서 各新聞은 發行이 不可能하게 되었다。 一、이 事態에 直面하야 京日의 新管理人 金宗亮과 및 東亞·漢城日報社 當局의 見地에서 圓滿한 收拾을 爲하야 協議의 相對者를 全評及 朝鮮出勞로 함이 正路임을 確信하고 折衷한 結果 兩便의 良心과 誠意와 努力은 마침내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어뎃다。

一、爭議에서 和協으로 對立에서 友好로 破壞에서 建設로 하고 나아가는 精神을 基調로 朝鮮의 富强, 朝鮮人全體의 繁榮을 爲하야 朝鮮及朝鮮文化의 獨自性과 朝鮮現段階의 實情에 則한 線을 方向으로 하고 企業者와 勞務者의 權利義務가 變務的인 原則下에서 不過한 勤勞層의 生活과 幸福을 增進하는 方法을 實踐하여 企業者의 自立自活의 原則과 勞務者의 失職防止의 原則이 調和되는 前提에서 今番事態의 源由를 究明하고 그 缺陷을 是正하야 左記諸項을 相互確認함。

一、京日、東亞、漢城의 工務部는 그 機構를 아래와 같이 區分하야 完全히 獨立함。

一、東亞、漢城은 文選課、整版課의 各工程을 各社直屬으로 主管함。

一、京日은 鑄字課(刻字包含)、鉛版課、輪轉課、平版課의 各工程을 主管함。

一、各社工務部責任者는 各自의 職場을 擔當하며 各社工務部는 責任者를 通하야 緊密히 連絡하야 相互協調함。

一、各社工務部의 工務員數와 그 配置는 當分間 前管理人方應模氏當時의 別表와 같이 定함(別表略)。

一、工務員으로서 新編制에 採用되지 않은 工務員은(人數略) 그 源由에 依據하야 善處하되 全評, 朝鮮出勞와 三社는 積極協力하기로 함。

一、今後工務員及賃金의 增減에 對하여는 全評, 朝鮮出勞와 友館的으로 事前協議하되 各社의 決定權에는 何等의 制約이 없음。

一、熟練工務員의 基本 固定賃金은 最低最高(金額略)를 定하되 技術과 能率의 差에 依하야 甲乙丙三種으로 함。

一、但見習工臨時工은 各社의 事情에 依하야 別定함。

一、賃金計算은 月給制를 原則으로 함。 缺勤者에 對한 賃金處分은 當分間 一般慣例에 依함。

一、東亞、漢城은 各自 現在部數를 基準으로 하야 萬部가 增加될 때마다 그 利得을 參酌하야 昇給함。

一、『뉴-욕라임스』를 包含한 京城日報社도 이 原則에 依準함。

一、外來의 受託印刷物은 組版料、印刷料를 計算하야 그 收入의 半分을 工務員에게 每月 按配함。

一、各社가 發行하는 新聞이 增頁附錄、號外等 그 題號를 使用하는 印刷物과 各社直屬刊行物에 對하야는 名目의 如何를 不拘하고 工賃에 類似한 別途支出이 無함。

但 八時間勤務의 原則에 어그러진 過度한 特別勤務에 對하야는 그 實情에 依하야 適宜한 方法으로 善處함。

一、各社는 新聞紙의 供給을 爲하야 年中無休를 原則으로 함。

但 各社內規에 規定된 期公休日과 京城市內各新聞社의 協定에 依한 臨時休日은 此限에 不在하되 工賃은 支拂함。

一、京日厚生施設은 從來의 運營方針을 是正하야 東亞、漢城、京日機構內에서 勤務하는 全員에게 그 福利를 均霑케 할 一、罷業이 있을 境遇 그 罷業期間中에 發生되는 損害에 對하야는 各社는 各社대로 工務員은 工務員대로 各自負擔함。 但 雙方見解의 相違가 있을 時는 勞務調整委員會의 決定에 依함。

一、京日 前管理人과 그 當時工務員과의 保爭事件 後事情은 事務引繼가 完了된 後 新管理人이 善處함。

一、本協定은 雙方의 協議에 依하야 改訂할 수 있음。

全國勞動組合評議會 ▲ 朝鮮出版勞動組合 ▲ 漢城日報社 ▲ 東亞日報社 ▲ 京日管理人 薛義植、金宗亮

人事

▲ 鄭柱萬氏(新韓公社總裁) 新任人事次來社

▲ 朴鍾敏氏(同副總裁) 蘇完奎氏(辯護士) 市內授恩町一六二에서 開業人事次來社

▲ 尹明龍氏(辯護士) 市內黃金町四丁目二七〇에서 開業人事次來社

▲ 全丙植氏(前全州地方法院檢事) 七月十日下後八時 京大附屬病院에서 長逝 發靷 七月十二日午前十一時 告別式場은 大學病院構內

親日派와 叛逆者

左翼內선 肅淸中

民戰記者團會見談

民戰에서는 昨十一日午前十一時 記者團과 會見하고 다음과 같이 時局問題에 對하야 一問一答을 하였다。

問 合作工作은 個人資格에서 表面化할 段階에 尙今 到達치 않었는가

答 兩方의 熱誠에서 積極的으로 推進되고 있다。 民戰의 兩先生의 接近에서 더욱 廣汎하게 進展될 것이다。 實踐되여 나간다면 原則에 미레서 우리 民戰은 이 工作을 積極的으로 支援할 것이다。 三相會議決定의 忠實한 履行이 없이는 朝鮮問題가 解決되지 않으며 民主主義臨時政府가 樹立될 수 있다는 것을 朝鮮人民은 다 ― 알고 있는 까닭이다。

問 左翼側에서 親日派 民族叛逆者의 肅淸을 하고 있는 親日派 民族叛逆者의 肅淸을 左翼側內部肅淸부터 하라는 一般의 소리가 있는데

答 同感이다。 民戰內에는 일즉이 親日派 民族叛逆者 專門委員會를 設置코 이에 對한 調査를 하고 있으며 民戰傘下에서 이러한 分子를 發見할 時에는 稀々除名整理中이니 그러한 사람이 우리 傘下에 있을 때에는 알려주기 바란다。

朴鍾萬氏 忠南知事

金亨俊氏 公報局長

軍政廳公報部公報局長으로 있든 朴鍾萬氏는 忠南知事로 榮轉하야 十二日赴任하게 되었으며 그 後任에는 金亨俊氏가 公報局에 있든 就任하였다。

新朝鮮建設 通信貯蓄增進募運動

建國의 土台는 貯蓄으로

☆郵便貯金 ☆國民保險 ☆郵便年金

京城通信局 管內郵便局

大新農業學校生徒募集

初級中學 第一學年生 約一〇〇名

一、出願期日 七月廿五日부터 同卅三日까지

二、試驗期日 同卅日까지

三、學年 補缺生 若干名

交通 西大門外 郵便局 私書函 二十一號 應用 光三七八一

京城府 西大門外 恩平面 佛光里 電話

生徒募集

白南工業學校(元櫻井工業學校)

土木科 第一學年 六〇名(初級)

機械科 第一學年 六〇名(初級)

電氣科 第一學年 一〇〇名(初級)

京城府 城東區 新堂町 五三〇 電話 東大門 二一六九

今般 本校名을 右記와 如히 改稱하는 同時에 生徒를 募集함. 詳細는 本校로 問議하라

出願期日 自六月二十五日 至七月十六日

試驗期日 自七月二十七日 至七月二十日

用紙 本校出給(要三圓)

朝鮮古書畵骨董入札即賣會

市內某大家秘藏

日時 丙戌七月十三日午前十時부터 下見 丙戌七月十四日午後一時부터 入札即賣

場所 漢城市中區本町一丁目二九 漢城美術館三階(元江戶川別館)

主催 朝鮮古美術協會 漢城市中區南山町二丁目 電話本局②四一九番, ②三六〇番

大成英數學院 夜間生徒募集

(前朝鮮外國語學院)

○語學 英語科(初等, 中等, 高等) 各五十名

○國語 會話科特設 國史科外國語 美國人及新刊講座教授

一、初學者及受驗準備生 特別歡迎(男女共學)

一、出願期日 七月十三日부터 同二十一日까지

一、開學日 八月一日 詳細來問

場所 鍾路通西大門町二丁目八九 皮漁新記念聖經學院內 電光二七四二番

生徒募集

一、人員 【高級一年】 機械科·建築科 各三五名 【初級三年】 機械科·建築科 二五名 土木科 各若干名

二、資格 【高級一年】 中等學校三年修了者 又同等者 【初級三年】 中等學校二年修了者 或은 國民學校高等科二年修了者

三、出願期間은 七月十五日까지 (願書一部三圓)

四、試驗期日은 七月十七日부터

京城城東公立工業學校(假校舍) 서울市孝悌町二九〇(鍾路五丁目)

☆朝鮮서처음나온 長篇創作童話☆

朱耀燮作 金義煥畵

웅철이의 冒險

어린이들이 憧憬하는 『땅속나라』 『달나라』 『해나라』 『별나라』 等朝鮮어린이의 代表 웅철이가 想天外의 冒險巡禮로 天體와 地下의 科學知識을 配하는 敎育童話 夏期讀物로 絶好 ・ 發賣中 ・ 20圓

☆『週刊小學生』放學선물

普通號의 三倍되는 童話·童劇·史話·科學·娛樂·懸賞 特別附錄 中等學校入學試驗問題集 6圓

여름방학특집

發行所 朝鮮兒童文化協會 (서울鍾路 永保빌딩)

男子大學에 女子도 多數

國語、歷史에 달린 ″登落線″

十日부터實施된 第一期入試風景

해방후 처음으로 우리들손으로 시행되는 전문 대학의 입학시험은 과연 어떠한가ㅣ더구나 기왕의 남조선 각 전문학교가 거의다 대학으로 승격하게 된 제 각학교의 합흠은 새일꾼을 맞꺼여 十일부터의 제一기시험으로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첫재 지원자수에 있어 법문과 계통이 평균 九대一의 거센 경쟁율을 보이고 이공학부(理工學部)와 의학계통이 버금자는 차례로 되어잇다 또한 남자대학에 여자들의 대량지원이 있는 것도 남녀균등교육의 조흔 례이잇다

그리고 시험과목에 있어서는 전에 보지 못하든 우리말 시험을 비롯하여 국사에 대한 것이 등락의 주요점으로 채점된다는 사실과 국어시험에 있어 우리의 고전문학에 대한 것과 시조(時調)와 「一사나운 개 코人등아 물 날이 없다」는 등의 속담(俗談) 또한 이 출제(出題)된 것 또한 금후 시험문제의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九對一의 競爭率

醫、理工系보다 法文系多數

文、英文、地歷、生物、敎育、家事、藝術、各五

이제 각학교의 모집인원과 지원자수는 별항과 같다

제一기시험의 합격자발표는 十七일경이고 제二기는 二十일부터 일제히 시행된다

第一期 (括弧內는 募集人員)

▲京大豫科 文科一六二名(一二〇) 理甲一三三九名(一六〇) 理乙五三八(一二〇) 計三四六九(四〇〇)

▲商經大學 經濟科一一八(一〇〇) 文科六〇八(一〇〇) 法科八七〇(一〇〇) 計二五九六(三〇〇)

▲京城醫科大學 九九〇(一〇〇)

▲法科大學 男二三〇〇 女五〇(一五〇)

▲藥學大學 五八〇(一五〇)

▲女子醫科大學 二三四(一〇〇)

第二期 ▲延禧大學 (調査中)

▲京城師範大學 四二五(一〇〇)

▲世富蘭偲醫科大學 一二〇〇(一八〇)

▲經濟大學 專門部一學年 一九二〇(三〇〇) 同 二年 七二(若干) 學部一年 四一(若干) 同 二年 六五(若干)

▲女子師範 一〇〇〇(國 十名)

▲梨花大學 (調査中)

▲齒科大學 (調査中)

▲東國大學 (調査中)

完全히장마氣壓配置

全朝鮮的이아니고地域的

몇칠을 계속하야 무더운 날세는 九일 저녁부터 기어히 장마비를 불러 왓다 관상대서울측후소의 천기도에 의하면 약한 저기압이 황해도에 있고 우세한 남지의 저기압이 서서히 남조선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비는 오다 맑다하고 또 때로는 소낙비가 나리게 되었는데 지금 천기도로서는 완전히 장마기압 배치이다 그러나 비는 전선적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오고있다

京城地方의雨量은 八九粍 11日正午現在

九일저녁부터 나리다 맑다 하면서 오는 이번 경성지방 우량은 一일정오까지에 八十九미리에 달하고있다

美國兒童이보낸膳物

文敎部서各國民校에傳達

미국국민학교 동무들이 조선학동들에 二천갑의 선물을 보내왓다 이것은 『칼포니아』주 소년적십자지부학동으로부터 보내온것으로 비누 작난감 편지 치분 크레용 연필 이빗 동속인데 주중에는 미국아동들의 소씨명을 적어 너흔 봉투도 있어 아로서 조선아동과 새로운 친선의 걸이 열릴기회도 갓게되어 문교부에서는 十一일 우선 시내六十三개국민학교 아동들에 전달하였다

釜山・忠州에 師範校를設置

九월一일부터 부산(釜山)과 충주(忠州)에 사범학교를 설치하게된다고 유(兪)문교부장이 十일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두학교는 아프로 교사의 재교육 우수한 교사의 양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리라고한다

合同은消滅을意味

京醫專敎職員會서聲明

방금 군정청문교부에서는 경성대학의학부(京城大學醫學部)와 경성의전(京城醫專)을 합동할 방침을 세우고있다하는데 경성의전에서는 이에 순응할수없다고 지난十일하오六시부터 동병원신강당에서 교장 심호섭(沈浩燮)씨 원장 백린재(白麟濟)씨 이하 교직원회를 열고 대략다음가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우리학교는 이미 광히三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밧기전부터 국립의학교로 써 창립되였고 그동안 량으로나 질로나 우리민족보건에 공헌한바가 크고 만흘뿐아니라 현재의 교수진용으로보거나 교직원의 향학열과 상호화합의 공기를 보거나 우리학교는 가장 우수한 학원으로 자부하는바이고 우리들은 경성의전의 발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느끼는 바이다 (중략) 진구한 교사는 그나마 소실되고 병원은 협착해서 해방조선의 화급한 요구의 하나인 의육의 중책을 완성을 기하기에는 절대적곤란을 느끼는 바임으로 필요한 시설을 교당국에 요구햇슬따름이고 력사깁흔 우리학원의 소멸을 의미하는 합동설을 인정할 의사는 추호도 없을뿐 아니라 우로는 교수진으로부터 아래로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학원의 발전을 해코자한 사실은 물론 그러한 생각조차 없음을 성명하는 바이다

七월十일 경성의전교수직원일동

京釜線全通

十一日부터運轉

수재피해로 오래동안 불통중이든 경부선은 드디어 十一일부터 서정리 평택간에 개통이 되었음으로 일반여객도 십일일부터 취급하였다

▲釜山、大邱線 九日부터 當間運休 ▲釜山、蔚山線 五〇一、五〇二列車運休 其他는 運轉 ▲蔚山、浦項線不通 ▲慶州永川(經由)大邱線不通 ▲大邱、三浪津線不通 ▲三浪津、大邱浦項線 一二五一、一二五二、一四列車以外全部不通 ▲慶州蔚山不通以外 其間不通되엿든 各線中 開通된 것은 다음과 갓다 ▲釜山、三浪津晋州線全部開通 ▲鎭海線開通

水害民更生에一億圓

任宅建築、農地復舊의資金으로

道當局서軍政에貸付對策을建議

저번폭우로 인하야 농경지를 비롯하야 수만정보의이 유실 혹은 파괴 또는 침수되여 와석주에 극도로 곤난을 밧고있는 수재민의 참상을 타개하고저 경기도에서는 도내수재민주택건축과 수리공사 또는 농경지복구를 위한 생업자금(生業資金)을 금융조합을 통하야 저리(低利)로 즉 년六부五리보다 더 싸게 대부하고 기한도 二三년이란 장기기한으로써 대부하기로 계획하얏다

이에 대하여서 방금 금융조합을 통하야 一억원의 자금을 군정청 재무부에 건의중인바 결재되는대로 곳 수재민에게 대부하게로 되엿다 한다

南鮮水害民의電燈料

六・七月分은收金않는다

남선합동(南鮮合同)전기회사에서는 수해이재민을 위하야 六、七양월분의 전등료금을 받지안키로 되였다한다

즉 평태이남지역에있는 수해이재민으로 사읍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가진 가정에는 六、七월분 전등료금을 받지않고 또한 수해동포수용소의 임시전등공사는 무료로하기로되였다한다

無煙炭一般에配給

十五日부터一叭式

백만서울시민의 열료당국에서는 十五일부터 각정회를 통하야 한세대에 무연탄七十四키로(한가마)식을 공급배급하기로 되엿는데 가격은 一톤(十四가마)에 九백四十七원五十전 七十키로(한가마)에 六十九원五十전으로 이것은 각가정까지 배달해주는 가격이다

호열자金堤地方이尤甚

벌서患者五百餘・死亡二六五名

【金堤支局特電】 김제지방의 호열자 발생은 점점증가하야 지난 十일현재로 환자 五백二十四명 사망二백六十五명이다 그런데 시체하나를 치우는데 천원내지二천원을 요하므로 매장이 엄게되지안허 환자가 더욱 창궐하여가는 참상을 이루고잇다

五十人以上座席

호열자豫防證必要

호열자가 점차만연하고있는 이때 지꾸진 장마비로 말미암아 병균은 더욱 창궐의 기세를 보이고잇서 이의 예방책으로서 서울시 방역당국에서는 十五일부터 五十인이상을 수용하는 극장 요리집 음식점 공회당 싸ㅣ까스등에는 호열자예방주사증을 가저야만 출입을 허락하기로 되엿다

全國農組總聯幹部

五名搜査局에被檢

九일하오四시경 전국농민조합총연맹위원장 리구훈([illegible])씨를 비롯하야 김기용(金驥鎔) 현세학(玄世鶴) 안초길(安初吉) 독욱(文獨旭) 동五씨는 군정청경무부 수사국에 구금되엿다

◇曆 七月十三日(金曜日) 陰六月二十三日 ▲日氣豫報 大體로흐리고때때로소낙비가오겠다 ▲溫度最高二十六度五分(十二日)

海牙密使의 피의 記錄 (三)

密詔를 가슴에품고 海牙로

韓國의危機를世界에呼訴

日本의陰謀는萬國會議에까지

이준(李儁)열사는 일본이 동양침약을 하는 첫발걸음으로 한국(韓國)의 국ㄱ을 탈취하려고 일홈조케 한국을 보호한다는 무서운 음모인 소위 을사신조약(乙巳新條約)이란 것을 께트려 버리려고 죽엄으로써 맹서햇든 것이다 그래서 열사는 상해로가서 거기에 거류하는 망명객들과 손을잡고 각국으로 편파하야 한국의 위기를 호소함과 함께 원조를 바라는 맹렬한 운동을 사작햇든 것이다

이와케 나라를 생각하는 일편단심이 쌔울 줄을 모로고 국내외에 잇서서 눈물겨운 국민운동을 이르켜 악착한 일본의 침약을 물리치기에 침식을 일코잇는 열사의 순국정신을 기피 이알케 된 고종황제(高宗皇帝)는 열사를 친히 엽헤 두고 위기에 직면한 한국운울 의론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강압적으로 밀려드는 일본의 세력과 손을 잡고 나라를 파라먹으려는 친일파의 박멸을 말하였든 것이다

마침 그때 광무十一년에 화란 해아부(和蘭海牙府)에서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고 고종황제는 친히 이준열사를 불러 신임장 인밀조(密詔)와 각국원수에 대한 친서를 수교하야 만국평화회의 석상에 참가함으로써 한국의 위기를 세계에 선포호소하야 한국자립의 정의를 부르짓게한것이다

最後의演說과 ″피″의噴火

그래서 이준열사는 황제의 밀조를 가지고 화란에 도착하야 회의에 참가하게 된것을 일본대표가 등(加藤)의 음모로서 드디어 참가치 못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우름소리로 한국대표가 모혀있는 회의장에서 가흑비열한 외적의 음모와 참악을 호령하고 세계평화회의에 한국대표 참석거절의 모순을 지적하는 애절통분의 연설을 하야 회장내에 라열한 만국대표의 가슴을 흔드럿든 것이다

그때 벌서 일본의 세력은 국내를 침범하였고 또 국외에 있어서도 한국(韓國)의 애국투사에 대한 감사와 극형이 뒤를 이었든 때문에 이열사가 칙명을 밧고 한양성(漢陽城)을 떠날때의 어마어마한 일인의 경계는 말할것도 없었거니와 부산(釜山) 인항 수삼만에 북간도(北間島) 로령(露領)을 거쳐 넘을때까지의 천신만고야 말할수있으랴 때로는 만첩산중에 혹은 강변에 몸을 숨기면서 귀중한 밀조(密詔)만을 김히 감추어 목적지인 화란의 평화회의장 목적지에 도착하였든 것이 여기까지도 일제의 모략이 있을줄 열사인들 어찌 아럿으라 …생각하면 비분이 터지려는 분화의 순간 그것은 매국노 이완용(李完用) 이와 이등박문(伊藤博文)의 최후적위협에 견디다못해 분댄 황제의 「밀사로보낸 사실없다」라는 답전을 바들때였다 만고에 빗날 열사의 투지가 이 한순간에 여지없이 께트러지고 그와 함께 대한국(大韓國)의 운명이 왜적의 발굽에 흐려드러가는 세기적 대의 비극 三천만의 슬픔이여 (게속)

톨쓰토이原作

산송장 Sansengjang

말셀·레루베 監督

가비·몰레― 피톨·푸란싼 좔주·리그― 主演

BOB 그랜드쇼― ·同時上演·

中央劇場 明日부터

BURGTHEATER 부록테아타

最高文藝映画

納維로비스超特品 위아리·폴스트秀才作品

12日부터 首都劇場

文藝部·構成 演出 『回想의小夜曲』 黃文平―音樂·金仙華―按舞 金貞桓―裝置·任 彬―照明

朝鮮映畫社 特作品 純情 戀愛悲劇(사랑篇)

朝鮮映畫社作品 沈淸傳 7月12日부터 優美館

讓渡 재봉침바늘機械 유성기바늘機械 作業中材料二年分在品工場急讓渡함 東四軒町五〇의二 洪淳瓊(百花園압집)

入荷案內

松脂、曹達灰、苛性曹達、各種植物性油、晒粉、次亞硫酸曹達、炭酸曹達、硫酸바리움、硅酸소―다、炭酸나도리움、硫化曹達、靑化曹達、鹽化加里、암모니아水、醋酸鉛、오메나이도、亞鉛華、다루크、糊粉、덴도라이도、白明礬、다당、重크롬酸加里、羊毛、大麻、綠柱石、사마

◎各種工業原料、資材 委託仕入及販賣代理店歡迎

營業種目 各種工業原料 化學工業 機械工具 肥料 油脂類 세멘트

合資會社 大榮洋行 漢城市中區蓬萊町一丁目五(物資營團西隣) 電話本局②三六七六番

生徒募集延期

學級增設과 水害關係로 受驗期日及其他를 延期함

一、願書受付期日 七月二十日까지

一、受驗期日 自七月二十一日 至七月二十四日

一、合格者發表 七月二十七日

東丘女商 京城鍾路六丁目 電話東局②三七三